삼성화재 (000810)

2Q26 Re – 하반기에도 이어질 배당 모멘텀

BUY

목표주가(12M) 785,000원(상향)
현재주가(08월13일) 6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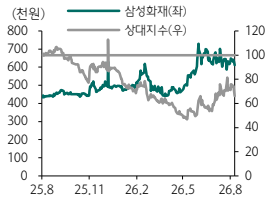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pt)	6,813.34
52주최고/최저(원)	730,000/436,500
시가총액(십억원)	27,279.6
시가총액비중(%)	0.49
발행주식수(천주)	44,647.5
60일 평균거래량(천주)	156.3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99
외국인 지분율(%)	58.05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5 인	19.63
국민연금공단	7.2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영업이익(십억원)	3,167	3,481
순이익(십억원)	2,253	2,558
EPS(원)	46,927	53,678
BPS(원)	646,534	691,93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영업이익	2,735	2,773	3,328	4,588
증가율	12.6	1.4	20.0	37.9
보험손익	1,849	1,520	1,794	1,997
순이익	2,074	2,018	2,405	3,309
EPS	47,580	46,248	55,270	76,327
증가율	10.7	(2.8)	19.5	38.1
PER	7.53	10.75	11.05	8.01
PBR	1.14	1.23	0.82	0.78
ROA	2.44	2.31	2.49	2.80
ROE	12.87	12.97	11.31	8.89
DY	5.3	3.9	3.8	4.5
배당성향	36.5	38.5	38.9	33.1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13% 상회

2분기 연결 지배순이익은 7,377억원으로 컨센서스(6,546억원)를 12.7% 상회했다.

[보험손익] 보험손익은 5,528억원(YoY +17.1%, QoQ +3.3%) 기록했다. **장기보험손익**은 4,403억원으로 YoY/QoQ 모두 성장세를 이어갔다. 보험금과 사업비 예실차가 각각 YoY 138억, 188억 악화되었으나, 2분기 계리가정 영향으로 손실부담계약비용 환입이 약 544억(계리가정 영향 435억) 발생한 데 기인한다.

자동차보험손익은 296억원(YoY +288억원) 기록하며 QoQ 흑자전환했다. 보험원가 상승에 따른 건당손해액 증가에도 사고율이 하락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YoY 1.4%p 개선된 데 기인한다. **일반보험손익**은 828억원(YoY +256억원)으로 대형사고 감소에 따라 손해율이 YoY 6%p 개선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신계약 CSM은 6,156억원(YoY -1.8%, QoQ -14.5%)으로 예상대비 부진했다. 월납환산 신계약이 QoQ 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인보험을 중심으로 신계약 CSM배수가 14.1배에서 13.6배까지 하락한 영향이다. 연간 신계약 CSM 목표치인 2.9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신계약 CSM 배수의 추가 하락 방어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한다. CSM 조정은 -2,077억원으로 경상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투자손익] 투자손익은 4,255억원(YoY +20.0%, QoQ +17.4%) 기록했다. 증시 호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확대와 캐노피우스 관련 지분법이익 중 약 380억원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며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K-ICS] 킥스비율은 282.8%(QoQ +12.7%p), 기본자본비율은 219.9%(QoQ +35.3%p)로 안정적인 수준이 이어졌다.

삼성화재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785,000원으로 상향

삼성화재에 대한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785,000원으로 약 12% 상향한다. 12M Fwd BVPS 746,051원에 Target P/B 1.1배(COE 8.6%, 3개년 ROE 9.1%)를 적용해 산출했다. 삼성전자 특별배당의 주주환원 방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특별배당 재원을 3~5년에 걸쳐 분급할 경우 연간 DPS에 3,700원 이상 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27년 DPS 27,500원, 배당수익률 4.5%). 이에 따라 중장기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배당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하반기 실적 개선 요인도 존재한다. 7월 관리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하반기 약 300억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계리가정 변경 영향으로 신계약 CSM 배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아쉬우나, 수익성 중심의 판매 전략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마진배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할 경우, 연간 신계약 CSM 목표치인 2.9조원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1. 삼성화재 2026년 2분기 실적 상세 내역

(단위: 십억원, %)

구분	2Q26P	2Q25	YoY	1Q26	QoQ
보험손익	**552.8**	**472.0**	**17.1**	**535.2**	**3.3**
장기	440.3	414.0	6.4	440.0	0.1
CSM 상각	403.1	406.4	(0.8)	399.8	0.8
RA 상각	59.1	47.0	25.7	53.6	10.2
예실차	(13.6)	19.0	적전	(9.0)	적지
기타	(8.3)	(58.5)	적지	(4.4)	적지
자동차	29.6	0.8	3,541.0	(9.6)	흑전
일반	82.8	57.2	44.8	104.7	(20.9)
투자손익	**425.5**	**354.5**	**20.0**	**362.4**	**17.4**
운용손익	754.2	641.1	17.6	712.0	5.9
보험금융손익	(328.7)	(286.6)	적지	(349.6)	적지
연결 영업이익	**988.7**	**835.0**	**18.4**	**913.8**	**8.2**
영업외손익	4.4	7.7	(43.2)	(56.1)	흑전
세전이익	993.1	842.6	17.9	857.7	15.8
지배순이익	**737.7**	**637.5**	**15.7**	**634.7**	**16.2**

주: 별도 기준, 영업이익부터 연결 기준
자료: 삼성화재, 하나증권

<2Q26 컨퍼런스 콜 요약>

[2분기 실적 브리핑]

- 전 사업부문 수익성 중심의 성장 전략 추진 중
- 상반기 보험손익 YoY 10.9% 증가한 1조 1,145억
- 상반기 투자손익 YoY 22.0% 증가한 7,880억 시현
- 상반기 연결 세전이익 1조 8,508억,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
- 상반기 지배주주순이익 1조 3,723억, YoY 10.2% 증가

[장기보험]

- 하반기부터 손익 강화 전략으로 전환하며 상품, 심사, 채널 등 밸류체인 전반을 개선
- 상반기 보장성 신계약 월 149억, YoY 19.5% 감소. CSM 환산배수 13.9배, YoY +1.1배 개선
- CSM 총량 전년말대비 4,271억 증대한 14조 5,947억 시현
- 보장성 유지율은 전반적 개선세 시현. 특히 25회차, 37회차 유지율 YoY 각각 6%p, 6.3%p 큰 폭 상승
- 작년 연중 악화 추세 보였던 손해율은 1분기 1%p 하락에 이어 2분기 QoQ 1.7%p 하락하며 안정화 흐름
- 보험손익은 8,804억, YoY 5.6% 성장

[자동차보험]

- 수익성 최우선 기조 유지, 매출 확대보다는 계약 포트폴리오 우량화 추진한 결과 상반기 보험수익 2조 7,400억, YoY 소폭 감소
- 보험손익 측면에서는 보험원가 상승에 따른 건당손해액 증가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해온 경과보험료 증대 노력과 운행량 축소에 따른 사고율 감소가 동반되며 2분기 보험손익 296억 기록. 당분기 및 상반기 누계 기준 흑자 시현
- 하반기에도 우량 계약 추가 발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체질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수익구조 재건을 통한 지속 가능한 흑자사업 구조 구축 목표

[일반보험]

- 국내/해외 사업 매출 동반 성장하며 보험수익 9,425억원 기록, YoY 11.2% 증대
- 저수익 섹터 관리 정교화와 대형사고 감소에 따라 손해율 또한 59.6% 기록, YoY 6%p 개선
- 보험손익 1,875억 기록, YoY 807억 증가
- 하반기에도 특종/해상보험 중심의 성장 전략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손해율 관리를 통해 국내 B2B 시장 주도권 강화

[자산운용]

- 보유이원 제고를 위한 고이원자산 투자 지속으로 이자수익이 안정적으로 성장.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평가익도 증가
- 상반기 투자이익률 3.5%, 운용자산 기준 투자이익 1조 7,498억, YoY 16.3% 증가
- 지난달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신용등급을 AA-에서 AA 상향. 한국 민간 기업 중 최초이자 유일한 AA 등급 보유기업

Q&A

1)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 10% 이상 감소한 듯. 하반기 신계약 CSM 빠르게 늘 수 있는지?

- 26년 상반기 신계약 CSM 월평균 2,071억, YoY 298억 감소
- 업계 전반의 성장 둔화 속 작년 2분기부터 손익 강화 전략으로 전환, 외형 확대보다 계약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결과
- 인보험 물량 축소되었으나 신계약 CSM 질적 개선 위해 고수익성 상품인 마이핏 위주의 세만기 비중 확대 등 매출 포트폴리오 효과로 CSM 환산배수 개선. 신계약 CSM 하락 폭 상당 부분 만회
- 26년 하반기에도 미래가치 중심의 경영기조 유지, 전속채널 신인 설계사 확충 효과가 점진적 가시화되면서 하반기 신계약 매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우량 신계약 기반의 안정적 CSM 창출을 기반으로 **하반기 신계약 CSM은 상반기대비 증가할 것으로 기대**

2) 삼성전자 지분가치로 인해 자본이 많이 늘었음. 기존 연간 ROE 목표치 11~13% 여전히 유효한지? 목표치 유지할 계획이면 주주환원 포함 보다 효율적인 자본활용 정책을 기대해도 되는지?

- 목표 ROE 11~13% 여전히 중장기 타겟으로 잡고 사업 추진 중
- 최근 삼성전자 주가 급등으로 ROE 일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대, 국내 B2C 사업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서 이익 성장할 것. 중장기 ROE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
- ROE 제고 및 자본구조 최적화를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은 다양한 방안 논의 중.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소통하고자 함

3)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원인을 분해해서 설명

- 작년부터 해준금 적립액이 상당 부분 크게 증가. **이 수준은 올해 정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작년, 올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GA쪽에서 매출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발생한 영향, **즉 신계약비 지출이 증가한 영향**
- **현재 매출 볼륨이 약간 감소한 상황, 매년 2~3천억 수준으로 점진적 감소 전망**

3-1) 현재 적립되고 있는 수준의 1/3 정도는 신계약비 지출 때문인건지? 매년 2~3천억원 가량 감소한다고 보면, 향후 3년 정도는 2조원 내외에서 적립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도 되는지?

- **올해 예상 적립액이 2조 내외로 예상, 내년 이후부터는 1.8조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 27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음

4) 초년도 손해율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위험손해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2분기 계절적 요인도 있는건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는지?

- 장기보험 손해율은 25년 4분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 특히 초년도 손해율 59.3%로 YoY 6.7%p 감소
- **25년 1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 이는 주요 생존담보 손해율 안정화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양호한 진단, 치료비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보고 있음**
- 하반기에는 실손 관리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서 손해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이와 함께 관리대상 비급여 전담조직 운영, 과잉청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손해율 지속 관리할 계획
- 추가로 25년 하반기부터 강화해온 입구 관리와 수익성 중심 포폴 전환 효과가 더해지며 손해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5) 간편심사 보험을 작년에 제일 많이 판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4분기 SI 관련 계리가정 반영되면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지 우려됨

-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이 12월부터 간편보험에도 적용될 예정
- 간편고지의 신규 담보에 대한 보수적 가정 적용으로 CSM 일부 마이너스 영향 있을 수 있으나, 유지율 등 효율지표 개선으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서 업계 동일한 보수적 가정 환경하에서 회사별 실적 관리 역량이 손익 확보와 CSM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
- 상품, 언더라이팅, 유지율, 손해율 등 밸류체인 전반의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해온만큼 안정적 손익 확보와 CSM 성장 기반을 이어갈 수 있을 것

6) 계리가정 변경의 영향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

- 26년 6월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은 결론적으로 크지 않았음
- 신규담보 손해율 91% 이상 적용으로 CSM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으나,
- 갱신담보 손해율 100% -> 91% 완화되면서 CSM 증가 요인으로 반영됨
-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반영과 전기간 사업비 인식, 분류체계 정비 등 부담요인과 개선요인 공존했음
- 결과적으로 부담요인과 개선요인 상호보완되면서 전체 재무영향은 크지 않았음

7)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성향의 지속적 상승 vs DPS 절대규모의 지속적 상승 중 어떤 것인지?

- 28년 배당성향 50% 타겟은 **DPS 규모의 우상향**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
- DPS 우상향 약속을 지켜왔던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8) 이번 분기 CSM 배수가 YoY/QoQ 모두 소폭 하락. 원인은? 신계약 CSM 규모 자체는 상반기대비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매출 볼륨보다 CSM 배수가 상승하는 그림인지?

- 26년 상반기 신계약 CSM 배수는 13.9배로 yoy +1.1배 증가
- 고수익성 상품 포트폴리오 증가, 경험위험률 조정 등을 통한 적정 원가 확보에 기인
- 다만 2분기 CSM 배수 13.6배는 QoQ 0.6배 감소, YoY 0.2배 감소한 수준
- 원인은 **초경증 간편보험 매출 확대에 따른 일시적 포트폴리오 영향**
- 하반기 이후 계리가정 적용에 따른 환산배수 하락을 수익성 중심의 채널상품 전략과 담보 포트폴리오 우량화, 적정원가 확보를 통해서 지속 만회할 예정

9) 투자손익 관련 이번 분기 FVPL 평가익, 캐노피우스 지분법 이익 양호했는데 일회성 반영된건지? 캐노피우스는 지분율 상승 이상으로 손익 YoY 개선된듯. 향후 손익 전망

- 일회성 요인은 캐노피우스 지분법이익 외 없음
- 우호적 매크로 환경에 따라 주식/채권 평가이익이 반영
- **캐노피우스 지분법 손익 26년 상반기 1,685억 거수, YoY 247.6% 증가. 지분확대 효과분이 684억, 자체적으로 보유했던 자회사 매각효과 389억 반영**
- **26년말 글로벌 보험시장 전체적으로 요율 하락하는 추세, 수익성 다소 하락할 수 있음. 다만 지분 19% -> 40%까지 확대된 영향 고려하면 총 2천억원 수준 예상(매각효과 제외기준)**

10) 캐노피우스 지분 추가 확보 계획

- 캐노피우스는 지분법 이익 확대 이외에도 현재 양사간 사업 협력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이해도 높이는 중
- 지분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소통하겠음

11) 밸류업 정책 내 우선주 관련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 및 향후 공시 시기

- 회사 내부적으로 밸류업 관련 다양한 아이템을 검토 중
- 구체적인 밸류업 정책 업데이트 일정은 현재 언급하기 어려우나, 관련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시장과 소통할 계획

12) 7월부터 관리급여 시행된 상황,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유의미하게 감소됐는지

- **도수치료 관련 청구금액 26년 상반기 일평균 4.5억 수준 -> 8월 1억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
- 도수치료는 이용횟수 제한을 통해 청구 총량이 관리되는 구조인만큼, 단기적 손해율 개선폭보다 중장기 안정화 효과 의미를 두고 있음
- 실제 효과는 연간 한도소진이 본격화되는 하반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추가 확인될 것

13) 6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도입 예정되어 있는데, 신계약 배수 미칠 영향

- 보수적 가정 적용되면서 신계약 CSM 환산배수는 소폭 감소 전망
- 적정원가 반영을 통해서 **상당 부분 회복했음**
- 하반기 추가 원가 확보와 수익성 중심의 채널상품 전략, 담보 포트폴리오 우량화 등을 통해서 연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14) 해준금 잔고 가이던스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향후 3년 정도 솔번시 캐피탈 creation과 consumption 생각해보면 넷 제너레이션이 더 클 듯. 회사가 생각하는 향후 자본비율 3~5년 정도 볼때 어느 정도로 캐피탈 레시오가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런관점에서 중기적 50% 배당성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 우선은 자본 비율 관련해서 킥스비율 283% 수준, 연말 정도 되면 향후 당기순이익 증가와 배당 감안 시 270% 수준으로 예상
- 해준금 제도 관련과 배당성향 관련 케피탈 레시오는 향후 별도로 답변 드리겠음.

15) 자본배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텐데, 향후 10년 정도 손익 구조를 고려해보면 지금처럼 장기보험 중심의 수익구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지?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지?

- 자본배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 현재 회사 수익 구조가 장기보험에서 45% 이상 이익이 나는 구조로, 장기보험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상황.
- 현재까지 장기보험 중심으로 성장해왔는데, 이러한 이익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있음
- ROE 11~13% 타겟을 국내사업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국내 B2C 사업 기반을 공고히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업 확장을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정책을 향후 10년 동안 노력할 것

추정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총자산	87,268	96,450	118,135	124,030	129,497
운용자산	83,836	92,487	113,563	119,276	124,523
현금 및 예치금	3,103	3,410	2,636	2,646	2,657
유가증권	50,826	58,880	80,828	85,508	89,820
대출채권	27,068	27,758	27,644	28,667	29,591
부동산	2,840	2,438	2,455	2,455	2,455
비운용자산	3,342	3,827	4,573	4,754	4,974
특별계정자산	91	136	224	224	224
총부채	71,666	75,158	80,880	84,461	88,327
책임준비금	65,327	66,540	65,149	67,558	69,736
보험계약부채	51,788	49,050	46,125	48,068	49,724
BEL	31,408	28,495	25,369	26,720	27,828
RA	1,942	2,111	1,979	1,963	1,939
CSM	14,074	14,168	14,498	14,926	15,345
PAA	4,363	4,276	4,278	4,458	4,612
재보험계약부채	0	0	0	0	0
투자계약부채	13,540	17,490	19,024	19,490	20,011
기타부채	6,247	8,480	15,506	16,678	18,367
특별계정부채	92	138	225	225	225
자기자본	15,602	21,292	37,256	39,569	41,169
지배자기자본	15,567	21,258	37,208	39,520	41,117
자본금	26	26	26	26	26
보통주자본금	25	25	25	25	25
신종자본증권	0	0	0	0	0
자본잉여금	939	939	939	939	939
자본조정	(1,487)	(1,219)	(951)	(683)	(41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18	6,868	21,084	21,084	21,084
이익잉여금	13,670	14,643	16,110	18,154	19,483
해약환급금준비금	2,213	4,130	5,561	6,248	6,936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보험손익	1,849	1,520	1,794	1,997	2,140
장기	1,578	1,508	1,608	1,632	1,688
CSM상각	1,612	1,621	1,651	1,664	1,710
신계약	48	40	37	37	35
보유계약	1,564	1,581	1,614	1,627	1,674
RA상각	165	199	227	235	244
예실차	81	(169)	(140)	(111)	(122)
보험금	146	(125)	(64)	(30)	(37)
사업비	(66)	(44)	(76)	(81)	(85)
기타	(281)	(143)	(130)	(157)	(143)
자동차	96	(159)	(83)	82	166
자동차보험수익	5,619	5,565	5,462	5,563	5,591
자동차보험비용	5,524	5,724	5,545	5,481	5,425
일반	176	171	269	283	285
일반보험수익	1,638	1,738	1,918	1,994	2,004
일반보험비용	1,462	1,567	1,649	1,711	1,719
투자손익	845	1,213	1,498	2,554	1,675
운용손익	2,183	2,474	2,848	3,921	3,063
보험금융손익	(1,337)	(1,261)	(1,350)	(1,367)	(1,388)
영업이익	2,735	2,773	3,328	4,588	3,852
영업외이익	10	10	(52)	(21)	(36)
세전이익	2,745	2,783	3,276	4,567	3,816
법인세비용	668	763	869	1,256	1,049
실효세율(%)	24.3	27.4	26.5	27.5	27.5
계속사업이익	2,077	2,020	2,407	3,311	2,767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077	2,020	2,407	3,311	2,767
지배순이익	2,074	2,018	2,405	3,309	2,764
비지배순이익	3	2	2	3	2

주요 투자 지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CSM Movement					
기초 CSM	13,303	14,074	14,168	14,498	14,926
신계약 CSM	3,451	2,898	2,569	2,652	2,658
이자부리	491	502	484	494	508
CSM 조정	(1,558)	(1,686)	(1,072)	(1,054)	(1,038)
CSM 상각	(1,612)	(1,621)	(1,651)	(1,664)	(1,710)
기말 CSM	14,074	14,168	14,498	14,926	15,345
CSM 전환배수(배)	15.2	13.5	13.8	13.9	13.9
CSM 상각률(%)	11.0	10.6	10.9	10.7	10.7
자본적정성					
K-ICS 비율(%)	264	263	282	283	281
지급여력금액	24,164	29,300	44,808	47,183	48,930
지급여력기준금액	9,137	11,148	15,900	16,700	17,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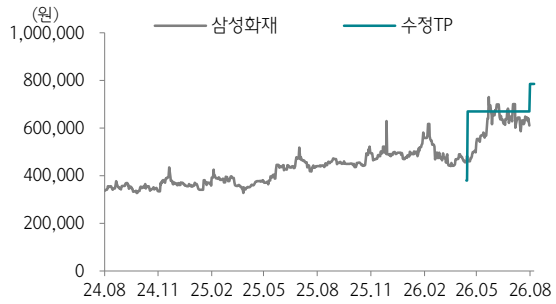
Valuation (단위: 십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주당 지표(원)					
BPS	314,101	402,876	746,051	784,345	805,807
EPS	47,580	46,248	55,270	76,327	63,371
(증가율, %)	10.7	(2.8)	19.5	38.1	(17.0)
DPS	19,000	19,500	23,500	27,500	29,500
주가 지표(배)					
PBR	1.14	1.23	0.82	0.78	0.76
PER	7.5	10.7	11.1	8.0	9.6
배당수익률(%)	5.3	3.9	3.8	4.5	4.8
배당성향(%)	36.5	38.5	38.9	33.1	42.5
수익성(%)					
ROE	12.9	13.0	11.3	8.9	7.0
ROA	2.44	2.31	2.49	2.80	2.23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삼성화재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8.14	BUY	785,000		
26.4.29	BUY	670,000	-8.29%	8.96%
26.4.27	담당자 변경		-	-
24.5.16	BUY	380,000	8.83%	65.79%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고연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고연수)는 2026년 8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62%	1.38%	0.00%	100%

* 기준일: 2026년 08월 11일